"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음주운전 적용 안된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일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장소에서 주취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해도 이는 도로상에서의 음주운전이라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도 적법한 요구라 할 수 없어 원고가 이에 불응했다 해도 음주측정 거부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올해 1월3일 밤 11시30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2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취업 미끼 금품 가로채기 광주·전남 사기사건 극성

전남경찰, 9·10월 93명 검거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기거나 구직을 조건으로 과다한 소개료를 뜯어낸 취업빙자 사기사건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불법 직업소개 및 취업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송모(58)씨 등 93명을 사기 혐의로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는 지난 2001년 모 대학 사범대를 졸업한 K(여·35)씨에게 "교육청 장학사를 많이 알고 있다. 7천만~8천만원을 주면 사립 중·고등학교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K씨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 사기는 절박한 심정의 구직자들을 두 번 울리는 파렴치한 범죄"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전자공고 학교기업 '카 뷰티샵'

"미래엔 나도 車 정비공장 사장"

학생 20여명 '출근'…月 800만원 수입

실제 고장난 차 고치며 현장기술 익혀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광주전자공고(교장 박병철) 2학년인 여진구(17)군에게 학교는 직장이다. 여 군은 오전 7시50분 등교하지만, 교실로 향하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교내 자동차정비공장인 '카뷰티샵'(Car Beauty Shop)에서 일과를 시작한다.

'카뷰티샵'은 지난 5월 교육부로부터 3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아 설립된 '학교기업'.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쳤다. 학교 측은 '카뷰티샵' 운영을 위해 공장장과 도장 전문가, 경리직원 등 3명을 고용했다.

여 군처럼 학교로 '출근'하는 학생은 1~3학년 통틀어 20여 명. 3학년이 절반, 나머지가 절반이다. 전자공고 내 자동차특성화과의 전체 학생 210명 중 10%가량이 기업에 근무하는 셈이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모형 자동차가 아닌 실제 고장 난 자동차를 고치며 현장 실무 기술을 익힌다.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판금 작업은 물론 도색, 엔진오일 등 부품 교환, 엔진 수리 등 일반 카센터에서 하는 일은 거의 다 한다.

학생들의 손을 거쳐가는 고장 차량은 하루 1~2대가량. 아직은 교직원이나 교직원 가족들이 주고객이다.

물론 수리비도 받는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작업과정을 설명하고 직접 수리를 맡기다 보니 일반 카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리 기간이 길어 요금은 30%가량 저렴하다. 매출은 한 달 평균 800여만원. 부품 구입비와 직원 인건비로 한 달에 1천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훨씬 못 미친다.

공장장 안홍석(41)씨는 "카뷰티샵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 마인드를 버릴 순 없지만 학생들의 교육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수익을 위해 무작정 많은 차를 고칠 순 없다"고 말했다.

도색을 전공하는 3학년 박민국(18)군은 "처음에는 우리가 고친 차로 돈을 번다는 생각에 떨리기도 했지만 이젠 일하는 것이 재미있다"며 "지금이라도 일반 카센터에서 일해도 바로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했다.

'카뷰티샵'처럼 학교 기업은 아니지만 광주지역 실업계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 만들어 활동 중인 창업동아리는 30여 개에 달한다.

분야도 비즈공예·리본공예·캐릭터 팬시용품·풍선아트·천연비누 제작 등 가벼운 소재부터 마이크로로봇 개발·응용반도체 조명기기 생산·광부품생산 등 첨단기술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2일부터 5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4회 광주직업교육박람회'에서 학생벤처창업관을 마련, 창업 아이템과 기술 등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자공고 학교기업 'Car Beauty Shop'에서 공장장 안홍석(오른쪽에서 두 번째)씨가 학생들에게 자동차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내 가출·불륜 등 가정불화 비관

50대 운전기사 2명 자살

부인의 가출과 불륜 등 가정 불화를 비관한 50대 운전기사 가장(家長)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개인택시 운전사 정모 (56·광주시 서구)씨가 자신의 집 마루 대들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정씨가 최근 자신의 부인(54)이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의심해 왔다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로 미뤄 이를 비관,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낮 12시30분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김모(54·광주시 북구)씨가 자신의 집 안방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2년 전 술을 자주 마시던 부인과 부부싸움을 자주 했으며 그 뒤끝 부인이 집을 나가자 심한 우울증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아들이 군 복무를, 딸은 결혼해 일본으로 떠난 뒤 혼자 살면서 "외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직장 동료들은 전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가족에 흉기 난동' 40대 체포

광주 서부경찰은 1일 노부(老父)와 자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존속상해)로 김모(4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0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J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잔소리를 한다"며 아버지(78)를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아들(9)과 딸(12)이 있는 작은 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피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3년 전 이혼한 김씨는 지난달 28일 저녁에도 흉기로 딸의 목에 상처를 냈으며 지난 8월에는 아버지를 발로 차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술을 마시고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참 〈6965〉 김종두

진도군청 도둑 맞고도 숨기기 급급

쌍나팔

○…진도군청 민원실에 도둑이 들어 금품을 훔쳐 달아났으나 군청 측은 이를 숨기기에 급급하다가 오후 2시에야 뒤늦게 경찰에 신고.

○…1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2시45분께 진도군청 민원실에 도둑이 들어 디지털 카메라 3대와 동전 4만5천원을 털어 달아났다는 것.

○…당시 민원실 CCTV에는 용의자가 든 손전등만 보일 뿐 얼굴 등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당직실에는 2명의 근무자가 있었지만 도둑이 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보안 체계에 허점을 노출.

○…진도군 관계자는 "범인들이 중요한 행정 정보가 담긴 컴퓨터나 장부 등은 손대지도 않았고 도난 흔적 등 전혀 이상이 없었다"며 "민원실 출입문은 전날 마지막 근무자가 보안 점검을 하고, 바깥 문은 당직자가 잠그도록 돼 있는데 도둑이 어디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

/진도=박현영기자 hypark@kwangju.co.kr